

## 땅에 있는 악

**핵심 구절:**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길로 행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노라”

**예레미야 7:23**

**선별된 성경 구절:**

**예레미야 7:1-11, 21-23**

본문의 명령은 출애굽기 19:5, 레위기 26:3-12, 신명기 5:33에 나오는 명령을 간결하게 재진술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살며 번성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로 나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순종은 제사보다 항상 하나님과 그 택하신 백성 사이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거짓 신들을 숭배하게 된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호와와 심판으로부터 안전을 구했습니다.

오늘의 선택된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전해진 여호와와 말씀 읽습니다. 그 말씀은 순종이 성전 제사보다 우월함을 선언했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려고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길과 행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땅에 살게 하리라. 거짓된 말에 의지하여 말하지 말라. '여호와와 성전, 여호와와 성전, 여호와와 성전이라!' 하지 말라. 너희가 진실로 너희 길과 행실을 고치고 서로 공평하게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해치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주었던 땅에 살게 하리라. 그러나 보라, 너희는 헛된 거짓말에 의지하고 있느니라.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 내 이름을 지닌 성전에 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안전하다—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해도 안전하다’고 하겠느냐? 내 이름을 지닌 이 성전이 너희에게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느냐? 그러나 내가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7:2-11

이 강력한 말씀은 유다가 악한 길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성전 제사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알려진 죄를 행하거나 인정된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도 자유로운 구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반대하며 말한 유다 왕국의 악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럽힌 성전을 두고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선포함으로써 그것이 자신들의 보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의 은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이 경고는 예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리다. 우리는 매주 씹 없는 날 동안 불순종하며 살다가 안식일에 교회 건물에서 구원을 주장하며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거기 계시다고 말할 수 없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계속 죄를 범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로마서 6:1,2).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종하려는 진실한 노력은 그러한 유독한 감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범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신성한 율법의 탁월함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죄의 악함도 드러내셨다. (로마서 7:13). 우리가 악을 행해도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